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12월 13일 (제82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그날에 받을 상

이번 우루과이 실업인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와 일행인 한 전도사에게 벤츠 자동차 회사 마크가 새겨진 귀한 골프채를 선물했다. 이 선물을 받고 한 전도사는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기뻐하며 기가 막힌 말을 했다. “목사님, 목사님이 늘 나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골프채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은 오직 목사님과 함께 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한 전도사의 말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야! 네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구나. 내가 대통령 궁에 가니 너도 대통령 궁에 갔었지? 내가 옥에 가면 너도 가는 거야.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가셔도 나와 같은 상을 받는 거란다.”

머리 가는 곳에 손도 가고 발도 간다. 왜냐하면 손도 나고 발도 나기 때문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라는 이치와 같다.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나와 안내를 서고, 의자를 놓는 분들, 꽃꽂이로, 성가대로, 유아유치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등등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왜 그들은 그 힘든 일을 자처하는 것일까? 나를 도와 일하면 그날 나와 같은 상을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가자. 그날 나는 여러분을,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고, 함께 면류관을 받으며 주님과 한 상에 앉아 파티를 즐기자.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에서 시작된다

지난 8일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는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전도집회를 가졌다. 대성전은 물론 소성전까지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니 대구교회 담임인 한송이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 장로 및 성도들이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단에 오르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역시 맥락을 같이했다.

“오늘 나는 이 단에 서기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간에 어르신들이 화장실 안 가게 기도했습니

여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라는 분 아시죠? 그 분이 올해로 91세입니다. 그 분이 암에 걸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세상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 분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주일이 되자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 분이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울면서 진실로 기도했기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굴 구릅니다. 이번 우루과이에서도 집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자 1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10시간 조르는데 어느 부모가 구하는 것을 안 주겠습니까? 더욱이 밤도 안 먹고 졸라보세요. 부모 애간장이 녹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이는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놓으셨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대구전도집회(2015.12.8 대구예수중심교회)

다. 그런 기도도 하나요? 그럼요, 기도란 나의 진실을 아뢰는 것이니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겁니다. 괜히 가증되거나 폄잡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 다 키워보셨지요? 손자 손녀도 키우셨을 겁니다. 어린 것이 자지러지게 울면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달려가 어디 아픈가, 배가 고파서 우나 하고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프다고 울고, 돈 없다고 울고, 자식이 속 썩는다고 울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이나?’ 하고 놀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구하는 것을 들

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70 평생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 왔는데 열치가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럴 거 없습니다. 70 평생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70 평생 믿은 사람과 동일하게 귀히 여기십니다. 70 평생 한 번도 목욕탕에 안 간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면 깨끗한 것처럼, 오늘 처음 교회에 온 분들도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며 떼굴떼

하나님을 어렵게 믿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직고하면 됩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이야 오죽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필요한 것을 울며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대하듯 정말 쉬운 설교로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 생 각나는 집회였다.

신묘수

jesusu7857@gmail.com



소성전도 가득 차 영상으로 중계하였다



예배 후 모두가 기쁨으로 기념촬영



노인들에게 알기 쉽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8:24~39)

경험은 확신을 갖게 하는 열쇠다

저는 지난 30년간 목회하면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고 외쳐 왔습니다. 탁상공론, 경험 없는 이론은 막상 실천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영도 물에 빠지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 홀아비가 홀아비 심정 아는 것 아닙니까? 세상만사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과 땅,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경험’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선전들 모두가 이 열쇠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경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다녀온 우루과이는 2002년 첫 집회 후 13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다시 대서양을 지나 꼬박 이틀이 걸려야 도착하는 곳이니 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곳인데 글썽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자 300명을 가르치고 난 뒤 식사를 대접한다 해서 갔더니 서로 눈치만 보며 돈 내는 이가 없어 제가 오히려 그들 모두를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행들은 그럴 수 있냐고 난리였지만, 그들 또한 하늘나라 백성이요 주의 종들이니 대접함이 마땅하다 했지요.

경험을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고, 제발 잠자리도 편안한 곳을 주시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2000년 우크라이나 첫 집회 때 정말 먹을 것이 변변찮아 고생했었는데, 그 다음 집회 때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항에서부터 빵을 가지고 나와 대접하질 않나, 고기며 싱싱한 야채로 풍성한 대접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구했더니, 글썽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 최고 재력가들이 부시 대통령이 묵었다던 최고급 호텔과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저와 제 일행을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도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느헤미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왕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요셉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그 나라 총리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실업가들을 들어 우리 일행이 귀빈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방백,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시146:3). 저는 주일 4부 은사집회 역시 몰려드는 영혼들로 차고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여

금의교단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에도 요동치 않고 하루 세 번 기도하다가 간신들의 모함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는 사자에게 잡아먹힐 위기에까지 처했지만,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오히려 3대 왕을 섬기는 그 나라 최고의 총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두 모여 기도하니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 역시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땅이 진동하며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경험담 그 자체입니다. 저 역시 성경 속 경험담을 의지하여 위기가 오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험의 열쇠를 푸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위기를 먹고 성장합니다만, 남의 경험담을 듣기만 해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에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집회를 앞두고 급작스레 현지 목사, 전도사 모두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며 기도했고, 저 또한 주일 2, 3, 4부 예배 모두를 인도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조사관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저

의 집회영상을 보게 하는 생 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분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좌절, 낙담하여 포기하십니까?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위하여 예비 되어 있고, 또한 이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발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여러분, 흰 콩과 검은 콩을 한 번 섞어보십시오. 콩이 많던 적던, 섞이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그것을 색깔별로 골라내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한 번 신뢰가 깨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능력과 축복을 받다가도, 어느새 그 마음이 식어 멸망의 구렁이로 떨어지는 일이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 끝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는 성경 속 믿음의 선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상에서 떡을 췌 그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금세와 내세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홍해가 갈라지듯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정, 사업, 목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수중에 돈이 많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 속 인물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 최고의 학문을 갖고 뒹췄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고전 3:21). 왜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하는 바울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모두 들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어머니의 기도

저의 어머니는 네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89세에 아침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고 난후 5분도 안되어서 벽에 기대신 채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때 비싼 관을 사고 수의에 많은 돈을 드리며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돈으로 구제하는데 사용하자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입으셨던 한복으로 수의를 하고 값이 싼 관으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셋째 아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2년이 지났을 때 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셨는데 기도응답이 천국 가신 후에 이루어지다니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응답 받지만 죽은 후에도 기도한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은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형이 전화를 하였는데 요즘 사업문제와 가정문제 때문에 죽고만 싶다고, 그런데 죽지도 못하는 것은 자살하면 천국에 못가고 지옥에 간다니 죽지도 못

하겠다고 말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막11:24).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막11:24). 그리고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된다'(눅18:1)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망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비록 살아 계실 때 그 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눈물로 기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택하여 주셨고 그 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더욱더 생각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초대 목사

changhun1013@hanmail.net

인생의 매뉴얼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사면 취급설명서가 들어있다. 이른바 매뉴얼이라고 불리는 이 취급설명서에는 제품의 기능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뉴얼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다. 그러다 고장이 나거나 막히는 때가 오면 그제야 매뉴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 매뉴얼을 뒤적거리다가 '이런 기능도 있었어?'라며 자신도 몰랐던 편리한 기능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의 매뉴얼은 성경이다. 성경에는 온갖 인간 군상들이 나온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모난 데가 있고 죄를 저지르며, 회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위대해지기도 하며 비겁해지기도 하며, 사랑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좋은 사람일지라도 때로 단점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물론 세상에도 사람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다. 인체의 구조와 원리를 다루는 책도 있고, 심리학이나 철학 서적도 있다.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지만 그 책들 속에 하나님은 없다. 물건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사람, 따라서 사람에 대한 매뉴얼에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책은 오직 성경이 유일하다. 살다가 막히는 일이 있으면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보자.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동하자.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다루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사랑의 쌀,김장 나누기'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는 153구제운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서울과 인천의 교역자 분들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 위해 이른 아침 일찍부터 삼삼오오 모인 성도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와 장화로 무장한 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비닐에 담고 포장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제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드는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여서 그런지, 해를 거듭할수록 김치 담그는 솜씨가 늘어가는 우리 예수중심교회인들의 위용이 빛을 발했다. 깨끗이 씻기고 소금에 절인 배추와 빨간 양념을 날라주는 사람, 그 배추에 속을 넣고 버무리는 사람, 그 김치를 김장용 비

닐봉투에 넣어 날라 주는 사람, 그것들을 빨간 '153구제운동' 스티커가 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포장하는 사람,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 그리고 바닥을 밀걸레로 닦고 다니는 사람, 포장 재료를 조달하는 사람, 일꾼들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레 이루어진 채 물 흐르는 듯 작업이 진행되었다. 중간에 양념이나 포장 재료가 빠른 손놀림과 바쁜 움직임을 못 따라가서 본의 아니게(?)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될 정도로 우리 교회인들의 작업 속도는 흡사 전문적인 김치 공장을 방불케 했고, 그 덕분에 예년에는 오후 2시를 넘길 즈음에야 끝이 났던 작업이 올해는 오전 중에 마무리되었다. 갓 삶아낸 수육과 방금 버무린 김치로 맛있

는 점심식사를 한 뒤에는 쌀과 김치가 각 교구와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배분되었다.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님은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봉사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한 알의 볍씨가 흰 쌀밥이 되기까지, 또 배추와 무와 고춧가루가 서로 어우러져 맛있는 김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정성이 동반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이들이 있기에 어느덧 이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는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절기상 대설(大雪)이었던 이 날, 하얀 눈은 오지 않았지만, 이 귀한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한 이들의 하늘 창고에는 다함이 없는 귀한 상품이 함박눈처럼 쌓였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12:33).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산지에서 도착한 배추 하역작업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있다



대형다라에 배추를 절이고 있다



쌀과 김치를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집회 광경



집회 및 세미나 비용을 제공한 우루과이 사업가들과 함께



숙소로 찾아온 다니엘 목사(목사님 왼쪽) 부부와 함께



앞에서 고침 받은 가브리엘 목사 부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는 작은 건물을 교회로 꾸며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까이에 커다란 예배처소를 준비해놓고 계셨으니 말이다. 가브리엘 목사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자신은 라구나 목사의 부목사가 되어 일해도 좋다면 흔쾌히 자신의 교회를 예배처소로 내놓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롬8:28)는 말씀이 이처럼 극명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

귀국에 앞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받은 다니엘(Daniel) 목사 부부가 숙소로 찾아왔다. 목사님은 새벽에 신문결재를 마치고 9시까지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다니엘 목사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무슨 소용이냐며 기다리라고 하셨다.

9시에 숙소로 들어온 다니엘 목사 부부와 라구나 목사를 앉혀놓고 목사님은 목회 성공의 노하우를 1시간 가까이 가르치셨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데가 있으니 결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 주옥같은 말씀에 다니엘 목사 부부는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이였다. 목사님은 다니엘 목사에게 '다니엘'이란 이름에 합당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다니엘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진정 다니엘처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디 다니엘 목사는 성경의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구나 목사와 힘을 합쳐 우루과이를 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업가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목사는 목사님의 가르침에 크게 공감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매주 세 번 씩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목사님은 그의 방송국을 우루과이를 넘어 남미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목사님은 매시간 최선을 다하셨다. 집회나 세미나를 마칠 때마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였다. 이날 아침도 목사님이 기도해야 한다고 들어가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다니엘 목사를 만나 조언한 것뿐 아니라 라구나 목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귀로에 오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기도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비행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연착,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들이 더욱 힘든 법이다. 따라서 제시간에 이륙하여 제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그만큼 여행의 피로를 덜어준다. 이날 아침 미팅을 마치고 몬테비데오에서 배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바꿔가며 오는 동안, 마치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 돌아가듯 때가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였다. 목사님의 세세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이다. 2015년의 마지막 해외집회를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또한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우루과이(Uruguay) 몬테비데오(Montevideo)에서 만난 이현숙 선교사는 이전과 달라보였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수 있고, 장보러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조차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수갑을 차고 감옥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은 살아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준 게 분명했다. 그 문제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당사자들뿐 아니라 우루과이, 파라과이(Paraguay) 교인들,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까지 합심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는 하늘보좌를 움직인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표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1차적으로 검찰조사관들이 우리 홈페이지 접속하여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보는 역사를 통해 구치소에 억류 중이던 그들을 석방하였고, 둘째는 그들이 목사님을 우루과이로 모시기 위해 강창한 것이 이루어졌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업가들이 나서서 집회와 세미나 비용뿐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일행의 숙소를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이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을 제공해준 사건처럼 말이다.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역사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낸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놀랍고도 감격스런 일은 라구나(Laguna) 목사의 사업체

가 있는데서 불과 세 블록 떨어진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Gabriel Pereira)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라구나 목사와 이 선교사에게 예배처소로 쓰라고 내준 사건이다. 둘 다 의사인 가브리엘 목사 부부는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 에스더(Ester Maria Saldias)가 암에 걸려 위중한데다가 가브리엘 목사 본인도 암에 걸려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오전, 목회자 세미나에서 맨 앞자리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세미나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유독 남달랐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연발했다. 은혜란 은혜는 혼자 들쭉 받는 모습이였다. 그날 저녁, 우루과이 예수중심교회의 예배처소로 자신의 교회를 내준다고 하는 목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보니 담임목사가 바로 오전에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들쭉 받던 그 노신사, 바로 의사인 가브리엘 목사였다. 그가 그토록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요동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한 여인이 올라왔다. 암에 걸려 있다는 그 여인을 안수하며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가브리엘 목사의 아내 에스더였던 것이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을 차려 일어난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있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확신에 차서 예배 내 두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곤 하였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우루과이 예수중심교회는 라구나 목사의 사업체 좌측에 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군의 울무에서와
극한 열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1~4절)**